

초록번호 01-3

제 목	국문	우리 나라 전문의의 근무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영문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Location Shifting of Specialis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진석, 윤석준*, 김창엽, 김용익, 신영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Jin-Seok Lee, Seok Jun Yoon*, Chang-Yup Kim, Yong-Ik Kim, Youngsoo Sh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진석	
발표 형식	구 연	발표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 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목적</p> <p>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의료자원 특히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존에 의사인력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균형분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의사인력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2년간 동일한 관련 요인들간의 비교를 통하여 의사인력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특성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p> <p>1997년과 1998년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1년 사이에 근무지역을 이동한 전문의를 추출하였다. 전문의의 근무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에서는 추출된 이동 전문의 가운데 군의관, 공보의 등 군 관련 복무자와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한 2,11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문의의 이동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된 전문의 28,217명 가운데 2년간 중복 신고되어 있으며, 근무지 확인이 가능한 18,7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p> <p>전문의의 근무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에서 선정한 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전문의 근무지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밀도, 인구수, 남자인구비, 5세 미만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경제 및 환경요인(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 1만명당 학교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인구 1만명당 병상수)이었다. 전문의의 이동 결정요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지난 1년간 근무지 이동 유무로 구분된 이분형 자료이며,</p>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출신대학 소재지, 수련병원 소재지, 수련병원 규모, 전문과목 등의 개인요인이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경제 및 환경요인은 연속변수이므로 t-test를 활용해 97년 근무지역과 98년 근무지역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이동의 결정 요인 분석은 종속변수가 전문의중 근무지 이동 유무로 구분한 이분형의 비연속변수이므로 선형중회귀로짓분석모형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의의 근무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밀도, 인구수, 5세 이하 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비율이었다.

둘째, 전문의의 근무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제 및 환경 요인은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 1만명당 학교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인구 1만명당 병상수였다. 이들 경제 및 환경 요인은 97년 근무지에 비해 98년 근무지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셋째, 근무지 이동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독립변수들의 단일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는 연령, 수련병원 규모, 출신대학 소재지, 전문과목이었다.

넷째, 1년 사이에 근무지를 이동한 전문의와 이동하지 않은 전문의간의 선형중회귀로짓분석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수련병원 규모가 대학병원이 아닐수록, 전문과목이 내과계보다는 서비스계일수록 근무지역 이동에 양(positive)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고찰

본 연구 결과, 의사인력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의사인력이 이전 근무지역보다 경쟁이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의사인력배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이동요인인 40대 이하의 젊은 의사인력을 대상으로 초기 근무지 선택시 필요한 의료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내는 의사인력배분평가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나라 의사의 근무지 선택과 이동이 의사 개인의 자의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의 배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무지역 선택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을 보다 분명히 규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